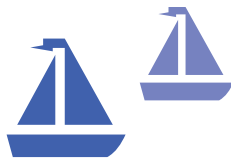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5. 7 + 8 vol. 134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쉼과 여유를 선물하는 일, 여름휴가는 그 자체로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를 품게 합니다. 올해에는 '방콕' 대신 자연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산과, 힘찬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계곡...
자연이 불어넣는 에너지로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FRESH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걱정 마세요! 메르스(MERS) 국민안심병원입니다

요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가정과 직장
에서, 또 생활 속에서 걱정 참 많으시죠? 특히 병원을
오가는 일이 생긴다면 더욱 망설여지고 꺼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심하시고 한양대학교의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서울 한
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모두 보건복지
부에 의하여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
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분리된 ‘선
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원에 방문
하는 모든 고객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
저한 위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이번 호 스페셜 테마 ‘수술 잘
하는 병원’의 주제는 ‘폐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로 꼽히는 치명적인 암이지만 한양대학교
의료원은 건강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와 진료량 평
가 1등급을 받으며 그 실력이 검증됐습니다. 특히 내
과, 외과, 방사선과 등 여러 분과 전문의들이 모여 진단
부터 수술, 항암치료, 예후까지 ‘다학제적 진료’를 행
함으로써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1:1 의료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작년부터는 방사선 치료 장비 중 가장 정
밀하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최첨단 방사선
치료 시스템 ‘노발리스 티엑스’를 도입하여 보다 정밀
하고 안전한 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메르스로 어려운 이 때에,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모든
의료진은 책임을 다하는 소명의식으로 여러분 곁에
든든히 서겠습니다.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③ 폐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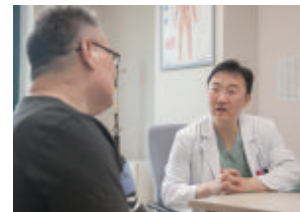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7+8월 호에서는 ‘수술 잘 하는 병원’ 시리즈 세 번째 순서로 폐암의
올바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소개합니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흉부외과, 혈액종양내과 전문
의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폐암 다학제
진료’의 특징과 장점을 전합니다.



- 02 즐거운 편지 | 걱정 마세요! 메르스(MERS) 국민안심병원입니다
-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고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 08 다이내믹 한양 | 바다 속에서 만난 바다 위 세상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③ 폐암



- 12 기관지 내시경·세침흡인 검사로 답을 찾다 | 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 14 최소 침습·로봇 수술로 길을 열다 | ② 흉부외과
- 16 표적치료·항암화학치료로 삶을 연장하다 | ③ 혈액종양내과
- 18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 2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속 ‘탈모’
- 24 베스트 파트너 | 김영찬 내과의원
- 26 Dr. Opera | 칼 마리아 폰 베버 오페라 〈마탄의 사수〉
- 28 Dr. Movie |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 서다’ 쥘트영화, 그 첫 번째 이야기
- 30 예술과 의학의 만남 | 오귀스트 르누아르 & 관절염
- 32 고마운 당신에게 | 한양대학교병원 최초 간이식 수술 받은 이요섭 님
- 34 Hanyang News | 제43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외
- 37 언론 속 한양인
- 38 발전기금
- 42 문화캘린더
- 43 외래진료 시간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치유하고 지탱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안내자

고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퇴행성신경질환 연구실, 이곳을 이끄는 신경과 고성호 교수는 '연구의 참 맛'을 느끼는 젊은 의사다. 연간 5억 원 이상의 국가 연구비가 지원되는 이곳에서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과 뇌경색, 치매 등 재생 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한창이다. 오늘 만나는 환자를 위한 기도로 진료를 시작하고, 그보다 더 많은 환자의 내일을 위해 연구하는 고성호 교수를 만났다.

글. 박한나 / 사진. 정준택

하버드대 연수 1년간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

고성호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년동안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연수를 다녀왔다. 뇌경색, 치매 치료법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그가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다.

“뇌경색이 있는 환자의 신경 줄기세포가 회복과 재생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 줄기세포의 재생을 억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미국에서의 1년간 연구를 통해 특정 단백질이 신경 줄기세포의 회복 기능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국내에 돌아온 고성호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2014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최고상인 ‘논문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신경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 재생과 후유증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고성호 교수의 연구 성과가 국내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와 기대를 받은 것이다.

“영어로 발표하는 세션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수상에 뿌듯했어요. 현재는 단서를 찾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밝혀냈으니 앞으로 회복 기능을 막는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물질이나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죠.”

임상과 연구 교수를 겸하는 국내와 달리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진료만 전담하는 교수와 의사임에도 학자처럼 연구에만 집중하는 교수가 따로 분리돼 있다고 한다. 고성호 교수는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척 부러웠다고 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학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대학병원의 수익이 걱정된다고요? 오히려 병원 진료와 관계없이 특허와 사업, 연구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대학 중의 하나가 바로



하버드대학교입니다.”

웃으며 전하는 그의 말에 뼈가 담겨 있었다.

“의사 외에 다른 꿈을 가져본 적 없어요”

초등학교 1~2학년 시절부터 위인전 ‘슈바이처’를 읽고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고성호 교수는 학창시절을 보내며 단 한 번도 의사 외에 다른 꿈을 가져본 적이 없다. 우직하게 꿈을 키워온 그의 저력은 의사가 된 이후에도 대학 교수라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게 만들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왔어요. 꿈이 있으니 목표를 세우게 되고, 목표가 있으니 노력하게 됐죠. 덕분에 100%의 완벽한 만족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부분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한 고성호 교수는 전공의와 인턴 과정을 거치며 신경과를 택했다.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들을 다루는 분야다.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신경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모험심 이랄까요? 연구를 통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신경과로 정하게 됐어요. 어떤 질환의 원인이 되는 기전을 밝혀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면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족한 능력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보기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다는 고성호 교수는 연구뿐만 아니라 진료에도 극진한 마음을 쏟는다. 다양한 경험으로 익숙해질 법도 한데 환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꼼꼼하고 조심스럽다. 매일 환자를 만나기 전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는 의사의 진단 착오나 작은 실수에도 환자의 생명이 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도 역시 환자다. 4~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르신 환자는 세 달에 한 번씩 외래진료 때마다 직접 키운 채소와 생필품을 들고 찾아온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어르신의 따뜻한 정 때문에 그 역시 웃음으로 받아 든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지만 환자분을 대할 때에는 최대한 평온한 상태로 진료에 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식약처 공보의 시절, 전환점을 맞다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고성호 교수의 하루는 유난히 빠르게 흐



퇴행성신경질환 연구실에서는 신경 줄기세포의 회복과 재생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른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컨퍼런스와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면 오후 4시~5시. 그가 다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맞은 편에 마련된 퇴행성신경질환 연구실로 향하는 시각이다. 이곳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그 날의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면, 그는 홀로 연구실에 앉아 논문과 연구계획서를 쓴다. 밤 늦도록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환자도 보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구와 실험실 운영까지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시간활용이에요. 요즘 아내가 저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시간을 잘 쓰자’라고 하더군요(웃음).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매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재미도 느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결과들이 나올 때 보람도 크고요.”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증명하는 기초연구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학자처럼 깊게 파고드는 고성호 교수의 노력은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었다.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했다. “제가 공중보건의 시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발령을 받았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 대해서만 관심이 좀 있었죠. 3년 동안 식약처 신경독성과에서 일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실험실 연구나 기초 연구에 관해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신약과 한약, 약초들의 효능과 독성 검증을 하는 일이었죠. 제 의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꼽는다면 아마도 그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질환의 원인이 되는 기전을 밝혀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면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 바꾸는 연구 지속할 것

요즘 신경질환 분야의 최대 이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와 조기 진단 분야이다. 두 분야 모두 고성호 교수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이 깊다. 그야말로 대세를 ‘따르코’이슈를 ‘이끄는’ 중인 것이다.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질환은 진단이 될 시점이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뇌의 80% 이상이 손상돼야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력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젊은 이들에게 발병하기도 한다. 신경계 조기 진단 분야가 점점 중요해 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방치하면 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그리고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싶어요. 줄기세포 연구라고 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성체줄기세포를 연구 중입니다. 제 환자가 좋아져서 퇴원하는 모습도 보람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계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과를 선보이고 싶어요.” 슈바이처처럼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의 꿈을 키워 온 고성호 교수. 슈바이처가 비단 아프리카 오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늘 환자의 곁에 머물러 치유하고 지탱해주며, 평생 질환의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을 위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치료법을 연구하는 그의 모습도 슈바이처만큼이나 숭고하고 아름답다. 🍌

다이나믹 한양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직원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전합니다.

취미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스킨스쿠버 동호회

바다 속에서 만난 바다 위 세상

세상은 막연히 아이디어로만 머무르기 쉬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용감한 소수의 실천가들에 의해 변화한다. 스킨스쿠버가 좋아 하나로 뭉쳤다가 이제는 의료봉사라는 대의를 내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의 한 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한양대 시설팀도 그런 소수의 실천가에 속한다. 개울이 강이 되고 강이 다시 바다가 되듯, 이들이 뿌린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임지영/ 사진 정준택, 김영진, 조영범

논스톱 스킨스쿠버 동호회 ‘딘과 함께 속도위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는 핫한 외모만큼이나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 팀이 있다. 블로그와 카페로도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딘과 함께 속도위반’이 그 주인공이다. 코믹북의 제목같은 이 동호회 이름은 스킨스쿠버 팀의 주축인 한양대병원 시설팀의 김영진 씨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멋진 남자주인공인 ‘딘’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멤버는 스무명쯤 되고요. 한양대학교병원 시설과 직원들 상당수가 가입했어요. 여자 회원이 가입하면 남자 회원들은 자동으로 늘어날 텐데, 얼른 여자 회원이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스킨스쿠버나 해양스포츠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언제든 격하게 환영합니다!” ‘속도위반’ 팀 결성 초기, 김영진 씨 외에 병원 시설팀 근무 5~7년 정도의 경력을 자랑하는 멤버들 가운데에는 아예 수영을 못하거나 물을 무서워하는 멤버들도 있었다.

“다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전에는 두렵던 것이 경험 후에는 조금씩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경험이 쌓이면 도전욕이 커지죠.” 부산 사나이로 어릴 적부터 바다에 익숙한 그는 7년 전 처음 스킨스쿠버라는 신세계를 접하고 그만 폭 빠져버렸다. 당시에는 중급 다이버 수준이었는데 하다 보니 강사 자격증에 욕심이 생겼다.

“강사가 되기 전에 서울, 동해 등지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해병대출신인 강사분이 너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스쿠버다이빙보다 강사가 무서워서 우는 여자 멤버들을 보면서 난 강사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결심했어요, 하하! 농담이구요, 편안하

게 가르쳐야겠다,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이고 도전욕은 두 배로 키워주는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 마음먹고 석 달간 집중 훈련을 받고 기어이 자격증을 따냈다. 이후, 주말은 물론 휴가가 생기면 고스란히 스쿠버다이빙에 헌납했다. “물에서 하는 거니까 다 같은 해양스포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쿠버다이빙은 수영 등과는 호흡과 핀킥에서 많이 달라요. 물 속 세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완전히 색다른 묘미가 있고요.”

대체불가, 비교불가한 스킨스쿠버의 묘미

이제 갓 스킨스쿠버의 세계에 입문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두 명이 한 조를 이루는 ‘짝다이빙’을 하게 된다. 비슷한 레벨로 짝을 짓는데 보통 15미터에서 30미터쯤 되는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게 된다. 실력이 향상되면 오픈워터 다이빙과 어드밴스드 다이빙 단계로 넘어간다. 김영진 씨는 어드밴스 단계쯤 되면 다이빙의 참맛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어드밴스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다양한 스페셜티 중에 고난이도에 속하는 동굴 다이빙이 가능해져요. 동굴의 경우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핀을 마음대로 차기도 쉽지 않고 핀을 잘못 찔 때 부유물도 많이 생겨서 아주 정교한 자세를 취해야만 탐험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단계가 되면 해저세계의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게 되죠.” 일찍이 수영을 해 물에 익숙한 시설팀의 류영현 씨나 물이 낯선 권혁진 씨도 스킨스쿠버는 수영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스킨스쿠버쪽이 도전과제가 훨씬 많아서 재미있어요. 배경도 수영



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스펙터클하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드밴스와 스페셜티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향하게 되는 관문은 ‘마스터 스쿠버다이버’ 단계다. 마스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혼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편 다이빙을 뛰어넘어 구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킬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의 마지막 라이선스다.

실력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는 도전욕을 채우고자 미지의 세계를 찾아 다녔다. 필리핀의 다양한 섬들은 이들에게 이미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팔라우, 제주도, 사이판, 괌 등도 상당히 친숙하다. 팔라우 해저탐험 중 바다가 호수로 바뀐 해파리 호수에서 투명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젤리피쉬 떼를 만나는 몽환적인 경험도 했다. 하나하나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귀한 체험이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영진 씨는 스킨스쿠버의 묘미에 눈뜬 멤버들을 잘 가르쳐 다양한 세상을 체험하며 신나게 즐기는 편다이버로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프로가 되고 나면 시야가 달라져요. 멤버들이 레벨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예요. 저만 본 믿기지 않을 만큼 근사한 해저세상이 많거든요? 보고도 못 믿는 그 판타지 세상을 하루빨리 우리 멤버들과 자유롭게 유영하는 게 소원이예요.”

봉사 겸한 취미가 되면 훨씬 뜻깊을 터 받은 만큼 바다에 빠지고파

‘속도위반’ 팀에게는 멤버들의 레벨업 외에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기고픈 또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 스킨스쿠버를 취미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가는 다이빙 포인트의 배경이 작고 허름한 어촌마을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마을의 열악한 환경에 충격을 받았죠. 필리핀 모알보알에서 현지인 어부에게 활어참치 한 마리를 산적이 있는데, 그때 그 어부가 엄청나게 큰 돈을 받은 것처럼 놀라면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을 뿐인데,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금액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마냥 흥가분한 마음으로 취미를 즐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영진 씨는 얼마 전부터 이 마을들에 취미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봉사’였다.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로 가르쳐주고, 멤버들이 그 대가로 현지에서 봉사를 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나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참여해준다면 금상첨화일 거라는 게 멤버들의 생각이자 바람이다.

“단순한 취미로 끝내고 싶진 않아요. 봉사활동을 겸한 취미라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 추진 중이에요. 인원이 늘어나면 분기마다 섬이나 오지를 탐방하며 주민들과 교류를 쌓고 우리 한양대학교병원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병원이 성장하는 게 제가 성장하는 거니까요. 젊은 피가 가진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정체된 마을에 활기를 주고 싶어요.”

젊은 피라 역시 신선하고 역동적이다. 이들의 여름 달력은 벌써부터 빼곡한 스케줄로 채워져 있다. 7월에는 속초 어드밴스드 중급파티가, 8월에는 부산 외섬, 거제도 다이빙이, 9월에는 사이판 다이빙이 예정되어 있다. 어렵잡아 꼽은 공식 스케줄만 이 정도고 비공식적인 스케줄까지 합치면 거의 매주 일정이 있을 정도다.

“스킨스쿠버의 장점이요? 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죠. 물론 동료에도 새롭게 다질 수 있고요. 하나가 아닌 우리라는 것, 그 우리가 모여 혼자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해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은 스킨스쿠버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예요.”

‘속도위반’이라 이름 붙였지만, 이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질서정연하게 제 속도를 찾아가고 있다. 바다로부터 받은 만큼 바다에 되돌려 주려는, 더 없이 멋지고 근사한 방식으로 말이다. 🌊

기관지 내시경세침흡인 검사로 답을 찾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 중의 하나였던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은 2001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유명인이었던 이주일, 이남이 등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 여전히 폐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치명적인 암이다.

폐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상의하는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필수적이다. 본원에서는 ‘폐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여 폐암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

폐암은 크게 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이 아닌 비소세포암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 전체 폐암의 약 15%를 차지하는 소세포암은 초기 병기를 제외하고 항암치료가 주로 이용되며, 약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은 수술적 치료, 항암 및 방사선 치료가 적용된다.

객혈, 반복되는 폐렴 등의 증상이 있거나, 혹은 무증상인 상태로 건강검진 흉부 X선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먼저 흉부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하게 된다. 만약 흉부 CT에서 폐암이 의심된다면 확실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기관지 내시경, 혹은 세침흡인 검사를 통해 폐암을 진단한다. 또한 병이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알기 위해 뇌 MRI, 뼈 스캔, PET-CT 등의 추가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병기를 결정하고 향후 치료를 계획한다.

도입된 새로운 치료기술, 높아진 생존율

소세포폐암의 경우, 일부 초기병기를 제외하고 재발이 많다. 수술적 치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암치료가 주된 치료다. 비소세포암의 경우는 병기가 1기부터 4기까지 나뉘지며, 1기와 2기 그리고 3기 일부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그 외 진행된 병기 환자들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표적치료제가 나오면서 폐암환자들의 생존률이 급격히 향상됐다.

표적치료란 최근 유전자 분석기능 발전으로 인해 폐암환자에서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 변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특정 유전자 변이만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를 일컫는다.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 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통합하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해졌다.”

글. 박동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원에서는 노발리스티엑스(Novalis-TX)가 도입되어 수준 높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높아진 만족감과 신뢰감 ‘폐암 다학제 진료’

의학의 발전으로 각 분과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최근에는 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세분화되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해졌다.

또한 치료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치료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 과정이나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겪게 될 문제점들을 미리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학제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를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등의 각 분야의 전문의를 포함하는 ‘폐암 다학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종양전문 간호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고, 병원도 다학제 진료실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현재 매주 정기적으로 폐암 다학제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폐암 다학제 진료에 가장 큰 장점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환자를 초기에 진단했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사와 수술을 집도했던 흉부외과 의사, 수술 조직을 검토했던 병리과 의사가 환자를 리뷰하고 영상소견과 수술소견을 고려하여 향후 치료계획을 세움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의 상세한 설명을 직접 대면하고 듣게 되어 큰 만족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최소 침습·로봇 수술로 길을 열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장기의 암 발생률이 남성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폐암이 진단된다. 여성에서도 신규 암 환자 분포도에서 보면 갑상선, 유방, 위 다음으로 폐암 진단율이 높다. 주요 장기별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1위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글. 정원상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 폐암 환자들에서 정확한 병기의 결정, 예후 예측은 폐암의 치료 방침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병기 결정의 방법

폐암은 국내에서도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요한 질환이다. 또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병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조기 폐암 환자에서의 수술적 절제술은 장기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온다. 진행된 폐암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의 병합요법이 행해진다. 그리고 말기 환자의 경우 고식적 치료와 신약의 임상 시험 등의 치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폐암 환자들에서 정확한 병기의 결정, 예후 예측은 폐암의 치료 방침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모든 임상 및 연구 데이터의 교환과 각 진료진 간의 의사 소통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를 시작하기 전의 정보를 바탕으로 병기를 결정해야 한다. 증상, 이학적 검사,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 종양의 생검, 진단적 개흉술, 임파절의 생검 등을 이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병기 결정을 하게 된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분류(T 병기 분류), 또한 임파절의 침범 유무(N 병기 분류) 및 타 장기 의 전이 유무(M 병기 분류)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병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폐암 환자의 30%, 수술적 치료 시행

폐암 환자들의 여러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결정권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만) 폐암의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 권장된다. 실제 폐암 환자들 중에서 약 30% 정도에게 수술이 이

루어지며, 종양의 절제술 및 임파절의 제거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고식적인 개흉 수술(Thoracotomy)과 최소 침습적인 수술방법인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법(VATS;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혹은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Robotic Surgery) 등을 시행하고 있다.

종양을 절제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종양을 포함한 최소한의 폐를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혹은 켈기절제술(Wedge Resection), 구역절제술(Segmentectomy), 폐엽절제술(Lobectomy), 전폐절제술(Pneumonectomy) 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종양을 절제할 때 절제 범위는 환자의 폐 기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타 장기로의 전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다학제적 노력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절제한 후 환자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는 수술로 절제된 종양과 임파절에서의 면역학적 염색이나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병리적 병기 결정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병리 병기에서 초기 폐암(Stage Ia)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종양치료 등을 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게 된다. 초기 이후의 병기에서는 타 장기로의 전이나 재발의 빈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항암치료나 방사선 종양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 등 관련된 모든 전문의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환자에게 최선,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치료 방침을 정한 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글. 원영웅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혈액종양내과

“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환자의 암의 정도, 나이, 전신 상태, 동반질환 및 가정과 사회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게 된다. ”

표적치료·항암화학치료로 삶을 연장하다

폐암을 포함하여 암이 진단된 이후에는 병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병기는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병기는 1기부터 4기까지 있으며, 일부 암을 제외하고는 전이가 있는 경우를 4기암이라고 한다. 폐암 4기 환자에 관한 혈액종양내과적 설명을 전한다.

폐암 4기가 다 말기암은 아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폐암 4기라고 하면, 말기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기암으로 정의한다.

치료를 통해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환자를 말기암이라고 하면, 환자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지 못해 치료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반대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진정한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치료가 시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통 항암치료라 하는 것은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항암약물치료) 및 기타 암을 치료하기 위해 시도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그 중에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는 국소부위에 한정된 암에 시행된다.

타 장기에 전이가 있는 4기 암에 대해서는 항암화학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다. 현재 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여러 표적치료제가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4기 폐암에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한가지 항암제 또는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병합하여 시행된다.

현재도 치료의 근간이 되는 항암제(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에도 피해를 준다. 따라서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각종 신약의 개발과 부작용을 조절하는 여러 약제의 개발로 좀더 수월하게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수 있다.

표적치료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는 더 뛰어난 편이다. 하지만, 표적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몸에 있는 폐암의 특성에 따라 효과에 차이를 보인다. 폐암 환자의 일부에서만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폐암 환자에게 일률적인 치료로서는 적용될 수 없다.

적절한 항암치료로 치료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항암치료를 받으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오히려 생존기간이 단축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폐암 4기 환자는 항암화학요법(항암약물치료)을 통해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폐암으로 인한 각종 증상(폐에 물이 차서 숨차는 증상이 발생하는 악성흉수, 뼈 전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등)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생존기간 동안 환자가 좀더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항암화학요법의 이득이 항상 그리고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환자의 암의 정도, 나이, 전신 상태, 동반질환 및 가정과 사회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암전문의가 항암치료를 권하는 것은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현재 환자에게 손해(부작용 등)보다 이득(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암치료를 결정하고 권하는 것이다. 환자나 가족들이 이 점을 이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항암치료 기간에는 고칼로리 고단백식 먹어야

식생활 습관과 연관되어 발생한 암이라도 암의 예방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식단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4기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폐암은 음식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암이 아니다. 대다수의 4기 암환자들은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기능이 떨어지며 영양상태가 불량해진다. 생존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항암치료 중에는 고칼로리 고단백식이 필요하다. 위생적이라면 특정 음식을 가리지 말고,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찾아서 충분히 그리고 자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Hanyang topic

앞서 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 이슈를 소개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투병생활의 터닝 포인트를 찍다

한양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높은 병상에서부터 개인 TV와 샤워시설, 24시간 병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최첨단 중앙제어시스템까지 조혈모세포이식센터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집, 가족과 떨어져 지루한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들의 고충을 헤아린 한양대학교병원의 환자맞춤형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글 임지영/ 사진 정준택

파란 하늘과 쾌적한 공기가 맞는 첨단병실

문이 열리자 호텔처럼 세련되고 화사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병원 공간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신(身)’뿐 아니라 결국 육체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心)’도 고려한 구성 및 인테리어다.

이곳은 얼마 전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개소한 한양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절망의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공간이다. 무균 관리를 위한 양압 병실에는 와이드 TV와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아우르는 시원한 전망까지 갖추고 있다. 환자는 병상에 누우면 대형 여객기를 타고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냉난방, 무균상태와 공기 청정을 위한 공조 시스템으로 인한 팬 소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의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어찌 보면 선진국의 병원들보다 일부 시설이나 과정에선 분명 더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병원 엄지은 교수는 매일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찾아 희망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만난다. 새롭게 오픈한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조혈모이식 과정에서 환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무균병실과 준무균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자체 공기 순환 및 소독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또 병실 자체에 TV와 기본 샤워시설 등이 있어 환자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입원기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특히 백혈병에 효과적인 치료법인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은 시술 후 환자의 면역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상당시간 환자를 무균상태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환자의 면역기능이 회복되는 기간동안 양압 시설을 설치된 병실은 환자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자가공급, 혹은 공여자의 골수기증으로 이루어지는 이식 시술

우리에게 ‘골수이식’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종양 환자에서 암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피를 생성할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치료법이다.

정교함과 정확성, 적시성을 모두 요하기 때문에 시술 중에서도 고난이도 시술에 속하며,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두 가지로 나뉜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식하는 것으로, 이식 후 회복기간만 거치고 나면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골수 기능 회복기에 채취된 조혈모세포를 -170℃의 액화질소에 냉동 보관해 환자가 수일간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냉동 보관되었던 조혈모세포를 해동시켜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 받게 된다. 악성고형암이나 혈액암 환자들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대상이 된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이식 후 여러 가지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꾸준히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좀 더 복잡한 시술이다. 동종조혈모세포 공여자, 즉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환자와 성별, 혈액형은 달라도 상관없으나 조직적합항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맞아야만 이식이 가능하다. 급성 및 만성 골수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환자들이 시술 대상이다.

“면역의 기본은 인지요요. 백혈구가 자기와 동일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인지해 다르다고 판단되면 면역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여자를 찾을 때 적합성을 정밀히 따지게 됩니다.”

이식 자체보다 공여자를 찾는 미션이 훨씬 어렵다. 부모가 같은 형

제자매의 경우 인백혈구항원 형이 일치할 확률이 25%로 높은 편에 속하므로 공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형제자매가 1명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핵가족이 많아 젊은 환자의 경우 공여자를 찾는데 애를 먹기도 한다.

형제자매 중에 공여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한국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국내,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에서 HLA 형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거나 제대혈 은행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된 제대혈을 이용하기도 한다.

첨단센터 개소로 열린 첨단 조혈모세포이식 시대

“다른 시술과 달리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시술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식을 받으신 환자들분이 놀라서 ‘이게 다예요?’하고 물을 정도죠. 하지만 시술이 전부가 아니고 시술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합병증, 부작용을 잘 이겨내야만 진짜 이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뉴얼된 조혈모세포이식센터의 개소로 한양대학교병원은 그간 주력분야는 아니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한발 앞서 나아가게 되었다.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친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최첨단 시설뿐 아니라 채집실의 근접성, 타 부서와의 연동성,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도 눈에 띈다.

대기시간 없이 응급실에 바로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환자의 목숨을 놓고 ‘응급실 쟁탈전’을 치러야 하는 타 병원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저희 조혈모세포이식센터에는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 담당 교수와 전공의, 전문 간호사들이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각종 첨단 의료시설의 가동으로 24시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중앙 집중식 컨트롤 제어 시스템과 장기간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병상 인테리어는 최상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이번 조혈모이식센터 리뉴얼 오픈을 계기로 엄지은 교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며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 두 가지를 주문한다.

“얼마 전 젊은 외래환자가 내원을 했기에 만나보니 활력 넘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과거에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병무청에 제출할 서류를 받고자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것이었어요. 밝고 구김 없는 젊은이의 모습에서 백혈병의 그늘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환자분들께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밖 일상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씩씩한 젊은이처럼요.”



Mini Interview

“이식시술 후
철저하게 관리,
환자들에게
‘희망’ 선물할 것”



엄지은 혈액종양내과 교수

“일단 조혈모세포이식이 결정된 환자들은 대개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환자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무엇보다 ‘이제 끝’이라는 환자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리노베이션 및 개소 앞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식편대수축증 등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의 합병증 및 면역상태에 관한 연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식시술까지가 절반, 그 이후를 나머지 절반으로 보거든요. 면역반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환자분들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고무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고,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BS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유준상의 탈모 현대판 ‘양반전’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민낯을 만나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SBS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가 막을 내렸다. 언뜻 대한민국 0.1%의 초일류 집안의 아들과 평범한 여성의 결혼이라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상류사회의 위선과 모순을 까발리는 풍자극으로 화제가 됐다. 온갖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 우리 시대 특권의식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무너지는 걸까. 결과 속이 완벽하게 다른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귀족 코스프레’를 들여다 보자.

글. 곽한나 사진. 나무엑터스



특권의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아들의 ‘불상사’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온 법조명문가 출신이자 국내 최대 법률회사 ‘한송’의 대표 한정호(유준상)는 논리의 제왕, 의전의 달인이다. 선대의 최고지향 덕분에 오직 최고로만 먹고 입고 배우고 자란 그는 약자를 배려하며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밖에서는 “요즘 시대에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민이죠”라며 온화하게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직급이니 재산이니 뭐니 죄다 신분 상승해서 도무지 변별이 안된다”며 귀족 우월감을 드러낸다. 만사 순조롭

고 완벽해 보이는 그의 단 한가지 고민이라면 최근 시작된 M자형 탈모 정도다.

그의 아내 최연희(유호정)는 어떠한가. 단아한 미소로 재색을 겸비한 그야말로 최고의 귀부인이다. 상류층 여인들의 선망과 질시의 대상인 그녀 역시 위선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유명한 점쟁이를 소개해달라는 친구의 말에 “법을 다루는 집안에서 미신이라니, 천박하게…”라며 고상한 척하지만 집안에는 부적 주머니를 숨기고 산다. 특권의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한정호와 최연희의 아들 한인상(이

준)은 외고에서도 눈에 띄는 수재이다. 완벽한 아버지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고, 기품 있고 아름다운 어머니한테는 짜증 한 번 낼 수 없는 소심한 아들이기도 하다. 넓은 저택에서 그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은 가사도우미의 방, 그런 그가 스펙을 쌓기 위해 참가한 영어 토론 캠프에서 서봄(고아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솔직하고 낭랑한 그녀의 웃음과 눈빛에 반한 한인상은 토론 캠프 마지막 날 결코 넘어서지 못할 선을 넘고 만다. 지옥 같은 수험생활을 마치고 수시전형 합격통보를 받은 한인상은 재회를 약속한 서봄을 찾아간다. 서봄은 이미 한인상의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몸이다. 처음으로 한인상의 집에 온 서봄은 급기야 최연희의 침대에서 아들을 낳는다.

속물적 욕망과 허세를 비웃다

엄청난 집안의 귀공자인 줄 상상도 못했던 한인상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서봄은 이토록 힘든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이한 한정호와 최연희도 당황한 것은 마찬가지. 천둥벌거숭이 같은 맹랑한 계집애는 겁에 질려 더듬거리면서도 시종일관 맞는 말만 한다.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분노와 혐오의 속마음을 감추고 싶지만 번번이 앞뒤가 맞지 않고 실수하는 쪽은 줄지 않아 아버지 할머니가 된 한정호 부부다. 한인상과 서봄의 관계를 인정하는 척하다가 뒤에서는 서봄의 부모에게 수십억 원의 ‘포기 각서’를 제시한 부부는 또 한번 이중성이 드러나며 수치를 겪는다.

〈풍문으로 들었소〉는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원하는 속물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있으면서도 그러한 욕망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최상류층의 민낯을 드러낸다. 귀족이라는 그들의 자부심 자체도 어쩌면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온갖 허세에 찌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풍문’인 것이다.

드라마평론가 김선영은 “〈풍문으로 들었소〉속 부부는 속물적 욕망에 비해 알팍한 내면의 소유자이다. 늘 서로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도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과 마주치면 울음부터 터뜨린다. 그들이 그토록 ‘남의 시선’에 연연해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정호의 탈모와 최연희의 주름 걱정은 그 내면 없는 존재들의 일차원적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다. 📺

남모를 고민 ‘탈모’의 종류와 치료법

김정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피부과



탈모의 종류와 임상적 특징은?

탈모는 보통 대머리라고 하는 안드로겐탈모증, 전반적으로 두피의 모발 밀도가 감소하는 휴지기탈모증과 생장기탈모증이 포함된 미만탈모증, 흉터를 남기는 지에 따라 비반흔탈모증과 반흔탈모증으로 다시 나뉜다. 안드로겐탈모증의 경우, 남성에서 주로 정수리와 전두부 앞 이마선에서 시작하여 알파벳 M자형으로 점점 진행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앞머리 이마선이 유지되면서 정수리의 모발이 적어지고 가늘어진다. 원형탈모증은 비교적 흔한 비반흔탈모로, 두피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둥근 형태의 탈모반이 발생한다. 그 외에 갑상선 질환, 임신, 매독, 루푸스, 편평태선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되어 탈모가 나타날 수 있다.

탈모의 진단은?

탈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피 전체를 잘 살펴서 모발 경계선이 잘 유지되는지, 전체적으로 탈모반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 자라는 모발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탈모의 범위를 보기 위해 전신의 체모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발을 당겨보거나(Pull test) 뽑아보는 검사(Pluck test) 등을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포토트리코그램(Phototrichogram)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모발의 비율, 성장 속도, 밀도, 굵기 등을 평가한다. 필요시 조직검사를 통해 반흔탈모증 동반 여부와 모낭의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 등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탈모의 적절한 치료는?

탈모의 치료로는 국소 도포제 및 경구 약제, 병변내 주사, 면역치료, 모발이식술 등이 있다. 바르는 제제로써 미녹시딜은 탈집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여 흔하게 사용된다. 안드로겐탈모증의 치료에서 경구 약제로는 5 알파-환원효소 억제제가 흔히 사용되는데, 이 약물은 탈모 발생과 연관된 안드로겐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남성 안드로겐탈모증 치료에 효능을 보인다. 원형탈모증의 경우 스테로이드의 도포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빠른 효과를 위하여 병변내 주사도 사용된다. 탈모반이 광범위하거나 전두부 탈모가 있는 경우 디페닐시클로프로페논(DPCP)을 이용한 면역치료를 시행한다. 탈모의 종류에 따라 약물치료를 반응하지 않는 경우 모발이식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탈모의 예후는 어떠한가?

탈모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안드로겐탈모증의 경우 나이가 들에 따라 점차 진행하게 된다. 원형탈모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나, 광범위하게 침범된 경우는 탈모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반흔탈모증이 있는 경우 탈집이 섬유화되어 파괴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다.

베스트 파트너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속 시원한 가정주치의

김영찬 내과의원

지난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종합병원의 내과의무원장으로 8년동안 근무했던 김영찬 원장이 강남구 신사동에 자신의 이름을 건 내과를 개원했다. 위경련 등 급성질환과 당뇨·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두루 정통한 김영찬 원장은 종합병원의 진료 수준과 동네병원의 친근함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글: 곽한나 사진: 정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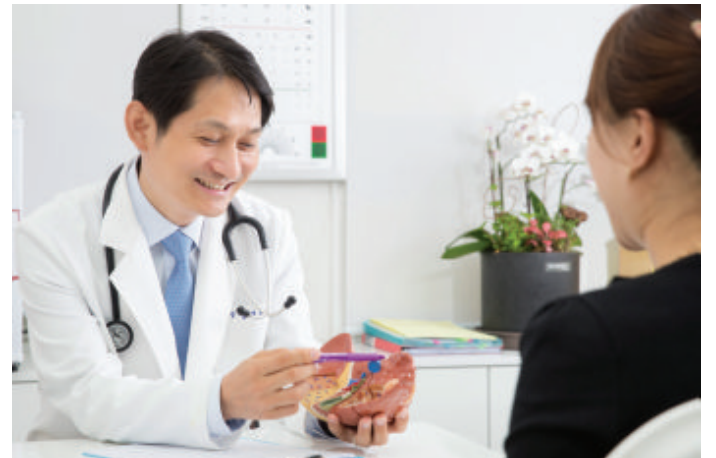
직장인 위한 전문 클리닉,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

김영찬 원장의 개원을 가장 반긴 것은 다름 아닌 그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었다. 진료를 위한 진료가 아닌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함을 지닌 김영찬 원장의 개원으로 병원의 문턱이 더욱 낮아진 것이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단골 환자분께 친밀한 개인주치의가 되고 싶었어요. 내과질환의 기본 검진을 위한 내시경·초음파 검사도 큰 병원에 가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편안한 시간대에 맞춰드릴 수 있게 됐죠.” 강남에서도 바쁜 직장인들이 밀집된 지역에 들어선 김영찬 내과의원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종합병원 1인실을 연상시키는 넓고 깨끗한 수액실이다. 천정까지 탁 트인 창과 폭신한 침대, 무엇보다 독립된 공간에서 수액을 맞으며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곳에서 비타민(아미노산) 주사를 포함한 항산화, 면역 증진 영양주사를 맞을 수 있다.

환자 스스로 몸이 매우 좋지 않아서 혈액검사와 CT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일 터. 김영찬 원장이 주목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도 이러한 임상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능의학’이다. 쉽게 말해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질병이 있는 상태도 아닌 중간 단계의 환자에게 필요한 ‘속 시원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만성피로도와 항산화, 면역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혈액이나 CT 검사에는 잡히지 않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최근 김영찬 내과의원에는 환절기 일교차로 인한 비염이나 편도염 환자가 늘었다.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인 메르스 여파로 자신이 메르스인지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도 많다. 김영찬 원장은 여름철 식품 위생이 소홀해지면 장염도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당부를 전한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의사

급성기질환은 말 그대로 이전에 없던 극심한 통증이나 증상이 갑자기 찾아온다. 환자 입장에서는 큰 병인줄 알고 종합병원을 찾게 되고, 지역 의원에서도 황급하게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경련 같은 급성기질환의 경우 고통과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합병원에서 긴 시간을 대기하고 비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랜 기간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김영찬 원장은 종합병원과 지역 개원의원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급성기질환도 지역 의원에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



김영찬 내과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6-16 K플러스타워 5층 ●문의: 02-3444-8875
●홈페이지: <http://www.kycim.co.kr>

단하되 과잉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기본에 충실한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는 것이 저의 진료 철학입니다.”

김영찬 원장은 원인 미상의 열이 발생해 일주일 이상 고생하다가 결국 ‘말라리아’ 진단을 받은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타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김영찬 원장의 세심한 진단과 정확한 판단으로 병명이 밝혀지고 증상이 호전된 사례다.

“그 인연으로 환자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돌보는 가족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겠다는 강한 동기 부여가 됐죠. 환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김영찬 원장은 진료협력시스템에 대한 바라는 점을 전했다.

“제가 졸업한 모교이다 보니 중증 환자의 경우 호흡기내과 윤호주 교수님이나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님께 바로 연결합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른 분과의 제가 잘 모르는 교수님이라도 바로 의뢰할 수 있는 진료협력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핫라인’ 개념인 것이죠.”

김영찬 원장은 병원 근처 노인복지센터나 구청과 연계한 건강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압구정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당뇨와 비만도를 측정하고, 식이요법에 대한 강좌도 열었다. 이날 참석한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척 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이 되고 싶어요.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족 같은 병원인 동시에, 정확한 진단 및 처치가 동반되는 믿음직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Dr. Opera

독일 감성의 진수로 불리는 국민 오페라

칼 마리아 폰 베버 오페라 <마탄의 사수>

Carl Maria Friedrich Ernest von Weber Opera <Der Freischütz>



18세기 초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대개 이탈리아 오페라의 양식에 따라서 이탈리아어 대본에 의존하여 작곡했다. 당시 모차르트도 이를 따라 작곡하였으나 일부 오페라에서 대사를 말로 하는 '징슈piel(Singspiel)'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18세기 후반 독일 특유의 오페라가 탄생한다. 이탈리아 오페라가 멜로디의 아름다움이나 성악에 집중하는 데 반해 베버는 극적인 내용 표현과 대본을 중요시했고, 오페라의 음악도 단순한 선율의 아름다움보다 극적인 표현이 추구되어 정서적인 감동을 더 실감나게 했다. 이로서 베버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독일 오페라의 새로운 낭만파 시대를 열게 되면서 진정한 '독일 낭만파 오페라의 창시자'로 등극하게 된다.

베버는 유랑극단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각 도시의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했다. 미하일 하이든을 비롯한 당시 여러 음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베버는 겨우 14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오페라 <숲의 소녀>를 작곡하여 성공을 거둔다. 이미 10대의 나이에 두각을 보이면서 18세에 브레슬라우 시립 오페라극장의 악장으로 임용됐고, 곧바로 슈투트가르트의 루트비히 공작의 개인비서로 자리를 옮겨 오페라 <실버나>를 작곡한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자신만의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창조했다. 1816년에 드레스덴의 궁정악장에 임명된 이후 본격적으로 오페라에 몰두하게 되면서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인 일곱 번째 오페라 <마탄의 사수>가 탄생하게 된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요한 아펠의 소설 「사냥꾼의 신부」를 주제로 한 것으로 법률가이자 시인이었던 프리드리히 쾨트가 각색하였다. 베버가 여기에 곡을 붙여 1821년에 발표하자마자 독일의 감성적 진수로 평가받으며 '국민 오페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독일 특유의 민속 문화와 함께 초자연적인 존재, 선과 악의 대결, 구원의 속죄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그 이전의 어느 오페라보다 더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오페라는 17세기 독일 보헤미아의 숲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악마와 거래한 젊은 사냥꾼의 이야기이다.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 주제를 삽입한 서곡은 사냥꾼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퍼지듯 당당한 연주가 시작된다. 시골 마을에서 펼쳐진

사냥 대회가 소박한 향기와 친근감을 물씬 풍기면서 산뜻하고 남성적인 '사냥꾼의 합창'으로 독일인들을 사로잡았다. 당시 <마탄의 사수>를 지휘하는 베버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9살 소년 바그너는 훗날 이 작품이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탐독하는 철학자부터 빈의 「모드 저널」의 독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매료시켰다면 자신은 제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버처럼 지휘하는 것이 소원이라 말하였다.

제1막 보헤미아 시골의 목로주점 앞 산림보호관 쿠노의 딸 아가테를 사랑하는 사냥꾼 막스는 내일 있을 사격대회에서 우승해야만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 하루 전날 있었던 연습경기에서 킬리안에 패한 막스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다. 그때 악마 자미엘에게 마법의 탄환을 조건으로 영혼을 팔아버린 카스파르가 막스에게 접근한다. 카스파르는 내일까지 누군가를 악마 자미엘에게 제물로 바쳐야 자신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처지이다. 그는 막스에게 월식이 일어나는 보름인 오늘밤 자정에 늑대골짜기로 가면 마탄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제안하며 내일까지 영혼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한다. 막스는 망설이다가 아가테와의 혼인을 생각하고 승낙한다.

제2막 산림보호관 집의 방 아가테는 벽에 걸린 조상의 초상화가 떨어져 머리를 다쳐 낮에 만난 수도사의 경고를 옌헨과 걱정하고 있는데 막스가 들어온다. 그가 사냥하러 늑대골짜기로 간다고 하자 아가테는 악마 골짜기라며 만류하지만 그는 뿌리치고 떠난다. 늑대골짜기 카스파르가 악마 자미엘과 흥정을 하고 있다. 시한 만료인 내일까지 새 제물인 막스를 바치겠다며 7발의 마탄을 요구한다. 자미엘은 6발은 명중하겠지만 마지막 한 발은 그가 쏘라는 자에게 명중하게 된다고 하자, 카스파르는 신부 아가테에게 발사해 막스와 신부의 아버지를 모두 절망에 빠트리자고 한다. 잠시 후 막스가 도착하는데 죽은 어머니의 환상이 나타나 그곳을 벗어나라고 경고하더니 곧 머리를 풀어헤치고 폭포에 투신하려는 아가테의 환영으로 바뀐다.

제3막 사냥대회가 열리는 날 막스와 카스파르는 마탄 덕분에 각각 3발을 명중시켰고, 마지막 남은 막스의 1발은 마지막 사격 콘테스트에 쓰기로 한다. 한편 옌헨은 간밤에 악몽을 꾸 아가테의 고민을 들어준다. 꿈에 아가테는 하얀 비둘기가 됐고 막스가 그녀를 겨냥하자 떨어졌는데 다시 아가테로 변신했지만 대신 독수리가 피를 흘린다는 내용이다. 마을 영주 오토카르는 신부가 도착하기 전에 시범사격을 마칠 것을 제안하면서 1발만 더 맞추면 막스가 우승이라며 나무 위의 흰 비둘기를 쏘 것을 제안한다. 막스가 겨냥하는데 비둘기가 앉아 있는 나무들 사이로 아가테가 걸어온다. 아가테는 "쏘지 마세요! 내가 바로 비둘기예요!"라고 외친다. 이때 마탄은 아가테가 안고 있는 장미화관에 적중되어 아가테는 기절하고 다시 튕긴 마탄은 나무 위의 카스파르를 맞춘다. 군중들 사이 자미엘이 나타나자 카스파르는 그를 저주하며 죽는다. 오토카르는 막스에게 사건의 전말을 자백하라고 명한다. 막스가 마탄의 힘을 빌렸다고 말하자 오토카르는 자신의 영지를 떠날 것을 명한다. 사람들은 자비를 간청하자 수도사는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동안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아가테와 혼인시키자고 한다. 오토카르가 이를 따르기로 하자 모두들 행복해하며 막이 내린다. 🎵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비아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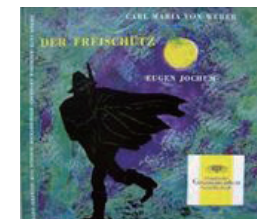
들을만한 Album



카를로스 클라이버(지휘), 피터 슈라이어(막스), 군돌라 야노비츠(아가테), 테오 아담(카스파르), 에디트 마티스(옌헨), 드레스덴 국립오페라(DG, 1973)



요셉 카일베르트(지휘), 루돌프 쇼크(막스), 엘리자베스 그렘머(아가테), 크리스티안 콘(카스파르), 리자 오토(옌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EMI, 1968)



오이겐 요훔(지휘), 리하르트 홀름(막스), 이름가드 제프리트(아가테), 에버하르트 베메(카스파르), 리타 슈트라이히(옌헨), 바이에른 방송오케스트라(DG, 1959)

Dr. Movie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 서다

컬트영화, 그 첫 번째 이야기



요즘 방송계의 키워드는 '남자 요리사', 그리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몸'이다. 그런 연유로 채널을 어디로 돌리든 어김없이 건장한 남자가 요리를 하고, 타이트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자가 배꼽과 애플힙을 드러내는 방송이 보여진다. 날이 더워지니 냉면 생각이 날 법도 하여 심심풀이 삼아 영화와 냉면을 비교해 본다.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함흥냉면을 주류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밍밍하고 심심한 평양냉면은 예술영화쯤 될 것이다. 기존의 재료를 쓰지 않고 다소 엽기적인 음식 재료나 독특한 향신료를 첨가한 새로운 냉면(이태원 냉면쯤 될까?)으로 소수이지만 열광적인 팬심의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감히 컬트영화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 지금 컬트영화 타령이냐고? 무려 30년을 기다려 온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가 개봉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상자를 돌보던 1970년대 호주 퀸즈랜드의 외과 전공의 조지 밀러는 친한 친구 셋을 교통사고로 잃으면서 폭력과 신체 훼손, 파괴적인 일탈행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술이 덜 깬 채 전날 싸움으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멜 깁슨을 오디션에서 발탁한 후 저예산 아날로그 액션영화 <매드맥스, 1979>를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1탄으로 만들어낸다. 조지 밀러는 이 영화에서 대공황과 오일쇼크로 모라토리엄에 빠진 국가권력의 상실을 황폐한 호주의 사막을 배경으로 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의 절망과 혼란을 그려냈다. 힘과 공포의 은유로서의 자동차를 가진 악당들의 횡포를 실감나게 버무려 낸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관을 제시하며 전체연령 관람가 영화 제작에 매달리던 할리우드는 영화 변방 호주의 무지막지한 날 것 그대로의 액션(exploitation)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 중세를 연상시키는 허허벌판의 요새에 포악한 군주에게 모든 것을 유린당한 채 살고 있던 힘없는 민초들은 망토와 레이스복을 걸치고 이상하게 개조된 포스트모던한 자동차를 타고 등장한다. 역시 처음 보는 희한한 총으로 악당을 물리치고는 홀연히 사라지는 변조된 서부영화 총잡이 신화가 구현된 셈이다. 핵전쟁 이후 사람부터 식량까지 모든 것이 돌연변이와 오염의 도가니에 빠진 상황에서 기사 맥스는 마치 예수처럼 홀로 악의 근원에 저항하는 무모한 여정을 감행한다.

다소 실망스러웠던 3탄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 등장한 리부트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는 좀 더 완벽한 디스토피아를 투영해낸다. 게다가 2시간 남짓 숨쉴 틈 없이 보여지는 자동차 액션은 운전자의 개성을 그대로 살려 튜닝한 자동차와 철저히 계산된 독창적인 폭파 신으로 말미암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관객을 땀으로 흠뻑 젖게 만든다. 그러나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가 보여줬던 시청각적인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의 숭고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 영화의 배경음악은 자동차의 굉음과 폭파음이며, 전장의 나팔수처럼 미친 듯이 날카로운 기타음을 연주하는 두프 왜건에서의 메탈 기타리스트는 키치적이지만 분명 감독의 말처럼 거친 락 콘서트와 락 오페라의 중간지점에서 관객의 엉덩이를 들썩일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다.

사실 '컬트(cult)영화'란 쉽게 정의될 성질의 용어는 아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소위 기괴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튀는 영화나,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든 기사들에 의해 영화적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을 대체해버리는 오류를 범해오거나 '컬트영화는 정의될 수도 없고 정의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반지성주의로 입막음을 해왔다.

송배를 의미하던 컬트 본래의 뜻이 외연을 확장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나 헌신'을 의미하며 '체험을 통한 공유'라는 집단적 현상을 가리킨다는 영화적 의미를 반추해볼 때 등장인물을 코스프레(스타워즈)하거나 콘서트에서 떼창하는 땀냄새 나는 공동체적인 경험이야말로 차라리 더 설득력 있고 감성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미국에서 동시상영을 하던 심야영화 일부는 소수 관객에 의해 제의(ritual)처럼 맹목적으로 추종 받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영화가 <로키 호러 픽처쇼, 1975>이다. 미적 가치를 떠나 이 영화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온다. 형식에 있어서는 동성애, 복장도착, 마약, 식인 등의 불쾌한 비주류적 감성으로 도배되었고, 내러티브 역시 필연적 전개를 해체하거나 거부한다. 영화 도입부부터 시작된 맥거핀 효과와 따라잡기 어려운 줄거리 구조로 말미암아 영화가 끝난 후에도 줄거리는 기억하기 힘들 정도다. 짧게 표현하자면, 이 영화는 그 당시 상황에서 젊은이의 문화를 대변하는 분출구로서의 문화적 마리아나이며 잠재의식 속의 어두운 욕망을 일깨우는 지극히 사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과격한 브리콜라주(bricolage, 현격하게 다른 문화와 맥락에서 차용한 기표·표현방식들의 유화 혹은 이들의 재조합)이다.

그러면 컬트영화란 일상성을 완전히 탈피한 채 마치 달세계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상한 영화만을 의미하는가? 넓은 의미에서의 걸작 영화로 꼽히는 <카사블랑카, 1942> 역시 움베르토 에코에 따르면 컬트영화이다. 카사블랑카 속에는 수많은 원형(prototype)이 나온다. 배우들 역시 이미 이전의 다른 영화에서 연기한 동작을 반복하며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 묘사된 틀(frame)에 박힌 익숙한, 하나의 영화가 아닌 여러 개의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특한 화학작용을 거쳐 나름의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극단적인 고통이 감각적인 쾌락으로 이어지듯이 극단적인 통속성 역시 숭고함처럼 느끼게 해주는 기묘함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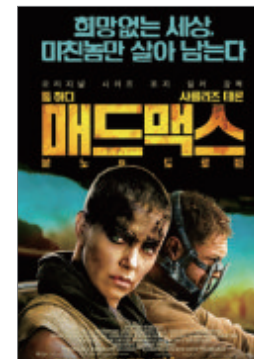
컬트영화의 자폐성은 <프릭스, 1932>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감독 토드 브라우닝은 개봉 당시 대다수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관적인 결말과 편치 않은 등장인물들을 출현시킴으로써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평가를 받게 되는 비운을 겪는다. 이 영화야말로 최초의 저주받은 걸작이 되었다. 서커스 단의 기형 인간들(영화 제목 그대로 상반신만 있거나 몸통만 남은 인간, 삼쌍둥이 등) 중에서 정상인인 그네타기 곡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사모하는 난쟁이 광대 한스가 유산을 상속받음을 알게 되자 그와 결혼하기로 한다. 결혼식 날 동료 기형인간들은 그녀를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성대한 피로연을 베푼다. 정작 신부는 역겨움을 느끼면서 이들을 모욕하며 원래 애인인 정상인 헤라클레스와 공개적으로 키스를 한다. 그녀가 독약을 먹여 한스를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음을 깨달은 기형 인간들은 외한만 정상인 클레오파트라와 헤라클레스에게 끔찍한 복수를 가한다. 감독이 애초에 의도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정념은 마음에 달린 것뿐이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애꾸는 마을에 두 눈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가 장애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상과 표준을 설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만 빨리빨리 재단하는 한국의 정상인에게는 이미 모든 일은 나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끈대정신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사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깨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은 내공 덕분이다.

볼만한 Movie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 (2015)

감독 : 조지 밀러

출연 : 톰 하디, 샤를리즈 테론



매드 맥스(1979)

감독 : 조지 밀러

출연 : 멜 깁슨, 조안느 사루엘



로키 호러 픽처쇼(1975)

감독 : 짐 셔먼

출연 : 팀 커리, 수잔 서렌든,

베리 보스트윅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오귀스트 르누아르 & 관절염



어스름하게 해가 지고 있는 어느 오후, 창가에 웅크리고서 맞은 편에 앉은 아이와 여자들을 화쪽에 담기에 몰두하고 있는 노 화가가 있다. 붓을 쥐고 있는 손은 과하게 오므라져있어 몹시 불편해 보인다. 손가락 관절은 모양이 어긋나 있거나 잘 펴지지 않아 손에 붓을 끼워 천 채, 천 조각으로 감아 고정시켜 물감을 찍고 있다. 글. 조수경 한양대학교류마

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아름답고 풍부한 색채 표현의 대가

노 화가는 그런 불편감 따위에는 아랑곳없이 날이 더욱 어두워져 햇살이 보여주고 있는 색채들이 사라질 새라 바삐 손을 움직인다. 가끔 통증이 몰려올 때에는 얼굴을 찌푸린 채 손을 내려 놓고 의자 뒤로 깊숙이 앉아 쉬거나 잠시 침대에 눕기도 하지만, 곧 일어나 붓과 화폭에 담을 아름다운 꽃을 찾는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아름답고 화려한 색채를 이용하여 ‘행복을 그린 화가’로 불리는 르누와르다. 1841년 프랑스에서 출생한 르누와르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태양 아래에서 변화하는 자연의 순간적 색채 변화를 중시하는 인상파 그룹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후에는 독자적으로 풍부한 색채 표현을 통해 꽃, 어린이, 여성들을 주로 그렸다. 그는 말년에 만성적인 류마티스관절염을 앓으며 관절의 변형과 통증을 안고 그림 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르누아르와 부인인 알린 르누아르에겐 세 명의 아들 피에르, 장, 클로드가 있다. 피에르는 훌륭한 배우가 되어 연극과 영화에 출연했다. 장은 1945년 <남부 사람>으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며 초기 프랑스 영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감독이 되었다. 장의 영화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르누와르가 관절염을 진단받았던 1900년대 초반까지 류마티스관절염은 통증을 일으키는 액성물질(rheum)이 몸 속에서 돌아다니다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관절의 손상과 변형을 막기 위한 치료방법도 따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1935년경이 되어서야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로 금제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1940년대에는 요즘도 흔히 사용되는 약제인 설파살라진(sulphasalazine)이 개발되었다. 또한, 스테로이드가 1938년도에 관절통에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 증례들이 보고가 되면서, 1949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르누와르는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해서 적절한 염증 조절과 통증 조절 치료도 없이 그저 고통을 견디며 투병하였을 것이다.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류마티스관절염’

최근 류마티스관절염은 보다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그 진단 기준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작은 관절에 부종과 염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초기에 진찰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경구로 복용하는 항염증치료제 및 항류마티스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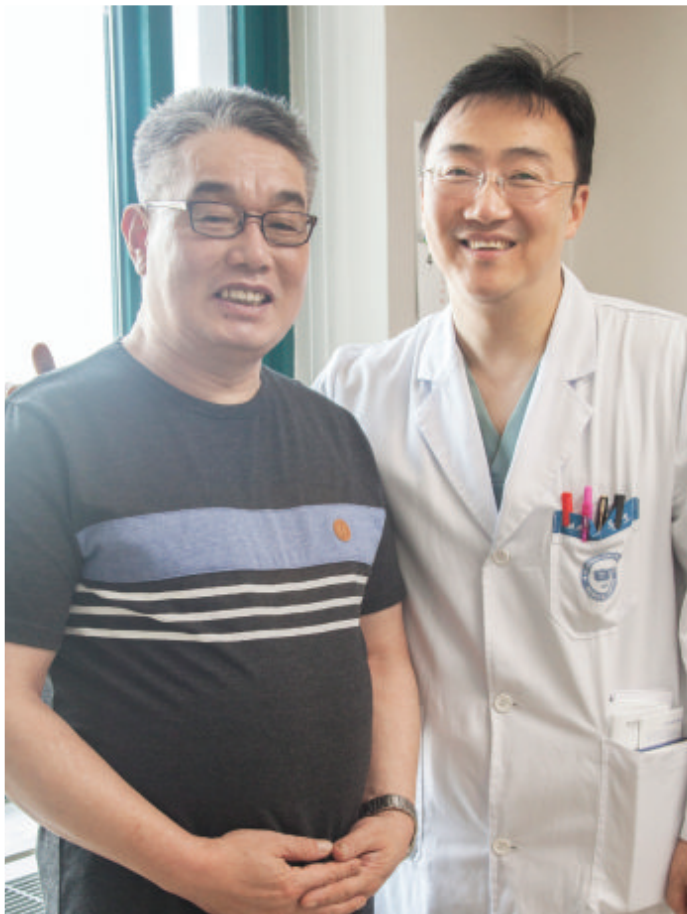


양한 용법의 생물학적 제제들을 이용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치료약제의 개발과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전략에 대한 연구 성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염증의 증거와 증상이 전혀 없는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향후 관절의 손상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도 기능장애가 줄어들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치료 약제들과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류마티스관절염은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불치병이 아니다.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인 관리를 한다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유명한 말과 함께 안락함과 행복을 느끼해 해주는 르누아르의 아름다운 그림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

고마운 당신에게
한양대학교의료원 앞으로 도착한 감사의 편지를 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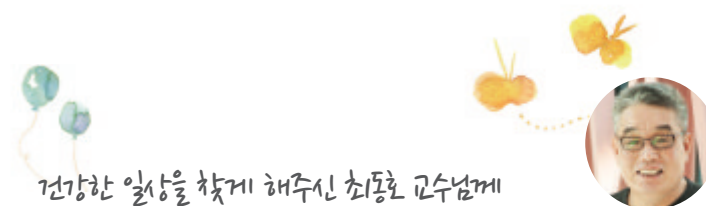


교통사고로 다친 왼쪽 다리의 인공관절 수명이 다해 재수술을 받고자 한양대학교 병원을 찾았던 이요섭님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 간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눈앞이 깜깜해진 그때 큰딸이 아빠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정리. 곽한나 사진.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간이식 수술 받은
이요섭님의 편지

“친절한 의료진,
다른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건강한 일상을 찾게 해주신 최동호 교수님께

저는 택시운전사입니다. 2006년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나서 119구급차로 한양대학교병원에 실려 온 것이 첫 인연이었습니다. 왼쪽 다리의 고관절과 무릎 발목을 다쳤는데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게 되었죠. 평소 술과 담배를 무척 즐겼습니다. 간수치가 높아 간 경화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공관절에 수명이 다해서인지, 술을 먹고 무릎을 해서인지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재수술을 받아야겠다 싶어 한양대학교 병원에 왔다가 간수치가 높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불사, 간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딸이 두 명,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검사 결과 아들과는 이식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딸과 조건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제껏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도 고마운데 저 때문에 자식의 몸에 칼을 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때 한양대학교병원 최동호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간 이식 첫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쁩니다. 환자로써 의사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제일 이라고 생각해요. 최동호 교수님은 따르 묻지 않아도 언제나 상세한 설명을 잘해주신 것이 인상 깊습니다. 수술 후에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제 상태를 챙기고 확인해주셨죠. 코디네이터 선생님도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병원을 수시로 다녀봤지만 최동호 교수님과 간호사 분들, 코디네이터 선생님까지 친절한 정도가 차원이 달라요. 어떤 병원도 한양대학교병원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제 수술 과정을 돌봐 주시고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마움을 담아 이요섭 드림

이요섭님에게

이요섭님은 간 기능이 모두 정상이고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거의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지셨죠. 앞으로 3개월 후면 직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다리 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다가 간암이 발견된 것은 이요섭님께 무척 다행인 일입니다. 이요섭님께 간 이식을 해 준 큰딸이 참 효녀였습니다. 수술을 위해 5kg를 감량할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하셨죠. 덕분에 아버지와 딸 모두 건강하게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간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양대학교병원도 드디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수혈 수술을 통한 성과라 더욱 큰 기쁨을 전합니다.

최동호 드림



한양대학교병원

제43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개원 4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4일 신관6층 세미나실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성준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최첨단 대학병원이 되기 위해 많은 시설투자를 하였고,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병원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고객과 가족애로 하나되는 환자중심병원을 위한 교직원들의 친절한 진료 제공으로 앞으로도 본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말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21명에게 ‘모범직원상’이 수여됐다. 의무기록팀 윤정화 계장 외 2명이 ‘이사장상’, 마취통증의학과 전중현 교수가 ‘총장상’, 국제행정지원팀 최영숙 계장 외 1명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 대외홍보팀 방성주 계장 외 14명이 ‘병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해 동안 언론홍보활동을 많이 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한양교수언론상’에는 류마티스내과 전재범 교수, 피부과 고주연 교수,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가 받았다. 간호국 김경인 부장 외 1명이 ‘공로상’, 외과 류영주 전공의 외 9명이 ‘의무기록상’, 산부인과 이은현 전공의 외 3명이 ‘친절직원상’, 교육연구팀 이충기 부장 외 2명이 ‘환자모시기상’, 간호국 국영 과장 외 1명이 ‘제안상’, IT팀이 ‘우수부서상’, 한양개발 송병용 현장소장과 JH토털서비스 김종천 대표이사가 ‘협력업체상’을 수상했다.

심혈관활영실 및 하이브리드수술실 개소

본원은 심혈관활영실을 이전, 확장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지난 5월 6일 본관 5층에서 심혈관활영실하이브리드수술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권성준 병원장은 축사에서 “이제 본원에 심혈관질환뿐만 아니라 전신혈관의 진단은 물론 내과적 중재시술과 외과적 수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복합 진료 시스템이 갖춰졌다”면서 “응급한 혈관질환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은 생



사를 가를 뿐 아니라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진단과 시술 및 수술이 동시에 가능해짐으로써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심혈관활영실-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수술 시 수술 시간 단축, 합병증 및 통증 최소화, 회복 기간과 퇴원 단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CT촬영과 실시간으로 심장 박동을 감시하는 ‘텔레메트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부정맥 시술도 가능해져 혈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내 정상급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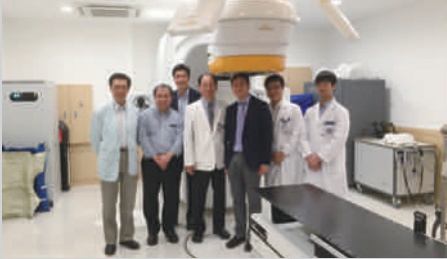
생체 간이식 2례 성공발표회 개최



본원이 지난해 간이식팀을 신설하고, 간이식 장비 확충과 장기이식환자 무균실, ‘보호 격리병실’ 등 시설 및 첨단장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간이식을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3일에는 본관 3층 강당에서 ‘생체 간이식 2례 성공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남민경 아식코디네이터가 ‘생체 간이식 준비과정’, 조인경 외과 전담간호사가 ‘생체 간이식 수술과정 정리’, 외과 최동호 교수가 ‘한양대학교병원 간이식의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성준 병원장은 “본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생체 간이식뿐만 아니라 뇌사자 간이식 등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 성 데레사 병원, 본원 노발리스센터 방문연수



홍콩 성 데레사 병원 신경외과 Fung 박사와 방사선 물리학자 Cheng 박사 외 2명이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본원 노발리스센터를 방문 연수하였다. 이번 방문은 홍콩 성 데레사 병원 노발리스센터엑스 설치와 관련하여 본원 신경외과 방사선 수술의 최신지견을 연수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기간 중 본원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와 함께 신경외과 분야 뇌종양, 척추전이암, 그리고 삼차신경통에 대한 방사선 수술과 소분할 정위적 방사선 치료에 대하여 연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동구의회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임상에 필요한 최신 의학정보를 교류하고자 지난 5월 1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성동구의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는 신경과 김영서 교수가 ‘두통, 어지럼증의 진단적 접근’,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가 ‘만성 C형 간염의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본원은 성동구의회 개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호흡기알레르기검사실 확장 개소



본원은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의 각종 검사를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알레르기 통합 검사실을 개소했다. 지난 6월 1일 열린 개소식에서 권 병원장은 “그 동안 분산되어있던 검사실을 한 데 모아 고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병원 내 공간배치 시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서관 4층에 위치한 호흡기알레르기 통합 검사실은 알레르기 검사실, 폐기능 검사실, 기관지내시경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제15회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4월 25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개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15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김경현 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교수가 ‘빈혈’, 호흡기내과 문지용 교수가 ‘만성기침 환자에서 고려할 사항’,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가 ‘경구항생제에 대해서’ 강의했다.

두 번째 세션은 김재민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안과 강민호 교수가 ‘노안치료의 최신경향과 실제’, 심장내과 박환철 교수가 ‘고혈압 치료의 최신지견’, 정형외과 김종현 교수가 ‘퇴행성 슬관절염에서의 주사요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창범 교수, ‘뱃살과 당뇨병’ 건강강좌



본원 내분비내과 이창범 교수가 지난 5월 15일 남양주시 북부보건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일환으로 ‘뱃살과 당뇨병’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 강의에서 이창범 교수는 “최근 신체검사가 대중화되면서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만이면 당뇨병이 될 수 있다”며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 소개하여 강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성호 교수, ‘재미있는 재활치료’ 건강강좌



본원 재활의학과 장성호 교수가 지난 5월 15일 구리보건소 지하1층 강당에서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미있는 재활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재미있는 재활치료에 관해서 장 교수는 “재활치료는 2만 번 이상의 반복작업이 있어야 새로운 움직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데 성인이 이러한 반복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게임기법을 이용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다”며 “가상현실, 동작 인식, 게임기법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재활치료를 통해 재미있는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제5회 안전의 날 행사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12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5회 안전의 날’ 행사와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경현 병원장은 축사에서 “2015년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대비해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화재와 같은 재난 훈련에 준비해야 한다”며 “제5회 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김용수 Q&A실장의 병원 안전 현황 보고와 직원대표 하경애, 노광규 계장이 결의문 낭독을 하였고, 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Best Clean Hands’, ‘Best stretching’, ‘환경관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금연 성공자와 손씻기 부문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번 행사는 5월 11~15일까지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매일 다양한 캠페인과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본 행사에 앞서 본관 1층과 2층 로비에서는 손 씻기 체험행사, 금연 홍보, 환자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했다.

강릉동인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본원과 강릉동인병원은 지난 6월 3일 강릉동인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진료 및 의학정보 교류 등 보건향상과 상호발전에 관한 협력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상호 환자의뢰, 의학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검사뢰 및 회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6월 4일 경북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우당관 4층 다목적실에서 경북대학교(총장 전지용)와 상호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건강정보 및 상담서비스, 각종 행사 시 상호 교류, 경북대학교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제공 등 다양한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경북대학교는 온-오프라인 홍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제5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14일 본교 HIT 6층에서 'Clinical Research for Rheumatoid Arthritis'라는 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임상연구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에 대한 학술적인 교류를 위해 '제5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 심포지엄'은 미국, 일본의 최고 전문가인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치료를 위해 류마티스내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 기관 연구자들과 제약회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7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22일 동관1층 로비에서 '제17주년 개원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충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권성준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본원은 류마티스질환에 특화되어 수많은 훌륭한 의료진을 배출하였고, 지금도 젊고 유능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며 "최근 개최된 '제5회 국제심포지엄'은 신구세대를 조화시키고, 유능한 연구원들을 개발해 국내 류마티스질환 치료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인사, 동정



김희나 간호사,
제44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모범간호사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국 김희나 간호사는 지난 5월 29일에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44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제에서 모범 간호사상을 수상했다.



김인아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김인아 교수가 지난 4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시스템 개선안 마련, 정신질환 재해조사 체계 마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 개선, 직업성 암의 유해물질 노출수준 평가 토대 마련, 업무상 질병 자문 업무에 의안정적 기여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정태 교수
말레이시아 성형외과 전문의
고시위원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가 지난 5월 17일~24일 말레이시아 Universiti Sains Malaysia에서 시행된 말레이시아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에 고시위원 자격으로 초청받아 말레이시아 성형외과 수련 과정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전공의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최첨단 중앙제어시스템을 갖춘 한양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이끄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누구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7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goo.gl/TiScii>

5+6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손** hepber***@naver.com
우** hy***@hyumc.com
정** apgs***@gmail.com
여** yar0***@naver.com
고** bluei***@nate.com
이** kelly7***@naver.com
손** myso***@hanmail.net
박** jiraen***@hanmail.net
문** jinkyu040***@naver.com
손** sh***@hanmail.net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5년 4월 ~ 2015년 5월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은 피부과 교수** 4월 1일/ SBS [모닝와이드]/ 환경노화의 습격! 최강 동안 사수하라 **김희진 신경과 교수** 4월 1일/ SBS [8시뉴스]/ "양가 부모 4명 중 1명꼴" 치매, 무서운 증가세/ 4월 3일/ SBS [8시뉴스]/ "뭐였지?" 울먹... 건강증과 다른 치매, 구별법?/ 4월 13일/ MBN [울엄매]/ 두 번째 편지, 이정순 여사님께(치매)/ 5월 27일/ KBS1TV [생로병사의비밀]/ 치매 1부, 알면 두렵지 않다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4월 1일/ YTN 사이언스 [잇슈매거진]/ 술, 건강하게 마시자, 술의 과학/ 4월 13일/ KBS 1TV [가애란의 알약톡톡]/ 술 마신 다음 날 아메리카노, '숙취 해소'에 도움될까요?/ 5월 11일/ 채널 A [닥터지바고]/ 간질환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 4월 7일/ TV조선 [뉴스쇼 편]/ 쓰는 물의 전쟁... 대기업 탄산수 전쟁 돌입/ 4월 22일/ YTN [뉴스]/ "위 상피하 종양, 크기 커도 60%는 수술 불필요"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4월 13일/ 채널 A [닥터지바고]/ 증상을 느끼면 늦다 심혈관 질환/ 5월 16일/ JTBC [신인류식 품관]/ 우리의 혈관건강을 지킬 해법은 없을까? **노영석 피부과 교수** 4월 16일/ SBS [모닝와이드]/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아토피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4월 17일/ MBC [리얼스토리논]/ 학원차가 또 부른 바극! 예원은 살릴 수 있었다 **김태곤 재활의학과 교수** 4월 17일/ MBC [파워매거진]/ 걷기 열풍 **이형중 신경외과 교수** 4월 20일/ SBS [8시뉴스]/ 뇌까지 영향 미치는 미세먼지... 연구결과

입증 무서운 증가세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4월 28일/ KBS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젊어지고 싶다면 당장 관리하라! 호르몬! **김인아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5월 5일/ KBS1TV [9시뉴스]/ 감정 노동자의 눈물... '산재 인정' 확대/ 5월 6일/ KBS1 [TV뉴스12], [TV뉴스광장]/ 감정노동자의 눈물... '산재 인정' 기준 확대 **김승현 신경과 교수** 5월 16일/ KBS1 [TV다큐공감]/ 슈퍼맨 아빠의 일곱 번째 봄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5월 20일/ SBS [8시뉴스]/ 류현진, 22일 어깨수술...기량 회복 가능성은? **노영석 피부과 교수** 5월 24일/ SBS [8시뉴스]/ 몸 속에 숨어있는 헤르페스, 치매 위험 높인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5월 7일/ SBS [생방송투데이]/ 닥터의 건강법칙 - 아토피피부염과 천식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5월 12일/ SBS [모닝와이드]/ 성인비만 **최호진 신경과 교수** 5월 21일/ SBS [생활경제]/ '뇌건강' 적신호, 치매를 막아라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5월 26일/ [헬스메디TV]/ 이슈&피플 - 우울증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4월 3일/ MBC [기분 좋은 날]/ 당신의 관절은 안녕하십니까? 보마다 무서운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5월 11일/ KBS1 [TV 뉴스광장]/ '시큰시큰' 관절염, 방치하면 큰병



「**한양대학교병원**」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 4월 29일/ 헬스조선/ 대변 가늘면 영양 부족... 장내 유해균 많으면 냄새 심해 **단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5월 10일/ 한겨레/ 출산장려금·취학통지서로 '학대 모니터링'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5월 13일/ 조선일보/ 고혈압·공황병 있으면 소금 하루 5g 이하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교수** 5월 2일/ 국민일보/ 고위험

신생아 진료전달체계 미완성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5월 6일/ 국민일보/ 청사초롱-가려운 등을 긁어 주듯이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김태환 류마티스내과 교수** 5월 21일/ 경향신문/ '강직성척추염' 평생 관리가 중요구준한 약물치료·운동 병행해야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
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
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
(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명예의 전당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만 원]



남명현 원장



고용 병원장



김근호 교수



김영수 교수



이광현 교수



이영열 교수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약정서

정보 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부금관리를 위해 보존되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기 부 자 인 적 사 항	☐ 동문 ☐ 교직원 ☐ 환자(가족) ☐ 학생(학부모) ☐ 법인(기업) ☐ 기타() ♣ 해당란에 모두 체크바랍니다(중복체크 가능)				
	성 명(기업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동문기재)	대학(원)	학과(부, 전공)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		직위
	직장주소 ()				
	자택주소 ()				
	이메일				
	유선연락처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기부 추천인			

약 정	약정액	금	원 (\)
	약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기부금 용도 지정은 필수이며, 「법인세법 24조 2항」에 의거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납 입 방 법	☐ CMS (본인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는 방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정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월정기납	☐ 15일 ☐ 30일	계좌번호
		년정기납	()월 ☐ 15일 ☐ 30일	결재은행 은행
		비정기납	☐	입금자명
	☐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6-273694 (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 급여공제	※교직원만 해당 사번 ()		
	약정서 송부 이메일) hmcfund@hyumc.com / 팩스) 02-2296-3806 기타 문의사항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02-2290-9283)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인)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5년 4월~2015년 5월 기부자 명단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동문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교직원	김성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상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미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소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선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정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영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숙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소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영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승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박시복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교직원	엄기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오열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은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여은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춘희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양석	김포예사랑병원	교직원	박재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기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혜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양선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교수	오동훈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고재성	고이비인후과의원	동문	김용호	김용호정신과의원	교직원	박정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연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은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종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재혁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동문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동문	박종민	젤피부과의원	교직원	오정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곽혜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종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주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곽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리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오홍석	용인정신병원
교직원	국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지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우춘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난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진용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유준호	다솜내과
병원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찬남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유태석	유태석 내과의원
교직원	권순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숙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원장	박종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유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현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미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오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김진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방성주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윤미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경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진순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배상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선미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교직원	김창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배영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금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춘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백두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윤성익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기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택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백은정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윤여옥	태암내과의원
교직원	김기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초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원경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기찬	김기찬내과	교직원	김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희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나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창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정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대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설인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향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대희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직원	김혜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명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음희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동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화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성안나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교직원	김령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휘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외순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직원	이경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령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희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정순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경하	해남해민병원
교직원	김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궁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윤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남정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혜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도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환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경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동규	이동규내과
교직원	김미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신인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이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미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미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민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슬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희숙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교직원	김민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혜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경아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석환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김병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민아란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봉건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박경모	한양정형외과의원	교직원	안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순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석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명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찬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슬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혜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용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애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우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광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은희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이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창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최충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충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현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향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하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혜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미경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동문	한장희	참조은이비인후과
교직원	임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지홍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지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현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현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함두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향순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허윤석	분당지상정신과의원
교직원	장유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경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정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은아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장창현	아주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은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정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미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현호	한양대학교병원	실장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전형수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수	황세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정옥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윤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유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인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찬호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정태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가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경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광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미행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성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영완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조용환	강남조앤조내과소아청소년과			
동문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조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주임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진춘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차경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선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근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선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순애	한양대학교병원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을 위해
647분께서 기부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ulture Calendar

7 July		7.1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신장질환의 원인 및 치료 (폭염 건강관리) - 신장내과 이주학 교수 오후 3시/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7.25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클리닉 환우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 오기욱 교수 오전 9시 30분/본관3층 강당	7.28 TUE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클라리넷앙상블 오후 12시 20분 본관 1층 로비
8 August		8.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정 이야기 - 소아청소년과 김자혜 교수 오후 3시/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8.10 MON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후 12시 20분 본관 1층 로비	
		8.12 WED 한양대학교병원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오후 1시 30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8.22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가정간호 - 장유리 가정전문간호사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최호순 윤병철 이오영 전대원 이항락	월, 화, 수, 금, 토(1주) 월, 목 월, 수, 토(4주) 월, 화, 목, 토(3주) 금	월 월 수 목 수, 금 월, 화	간질환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간질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강녕	화, 토(2주)	목, 금	
심장내과 2290-8700	김영택 이강원 곽주희 임동희	월, 화 목 금	수 화, 목 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임한길 김경수	목 화, 목, 토(2주)	월, 수 화, 금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졸기세포치료,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심혈관중재술,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신장내과 2290-8300	신진호 임영효	월, 수, 금, 토(4주) 수, 금, 토(3주)	수 월, 목	
	박진규	월, 화, 토(1주)	목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김근호 이창화 박준성	월, 화, 수, 금 월, 금, 토(3,4주) 수, 목, 토(1,2주) 화, 목, 토(3주)	화, 목 월, 금 월, 수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내과 2290-8300	안유현 최유환 김동신 박정환	월, 화, 수, 목, 토(2주) 월, 화, 수, 금, 토(3주) 월, 수, 목, 토(4주)	수 월, 화, 금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일반 내분비내과 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신동호 윤호주 손장원 김상현 박동원 이지영	토(3주) 월, 화, 수, 토(4주) 월, 목, 토(2주) 목, 금, 토(1주) 수 금	화, 목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월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폐결핵, 폐렴, 폐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박병배	월, 수 화, 목	화, 목 월, 금	만성혈액질환, 골수질환, 골수종양, 골수이식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위암, 대장암, 식도암, 당도암, 췌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염지은 이준호	금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오성희 김남수 이영호 김용주 박현경 이현주 김자혜	화, 목, 토(4주) 목, 금 월, 수, 토(3주) 월(구리), 금▲ 월, 화, 수 화, 토(2주)	월, 수 월, 화 화, 목 화, 목 수 목, 금 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소아감염질환 소아심장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소아소화기영양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소아내분비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이현주	월 수, 목, 금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표리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김승현 김희태 김현영 김희진 김영서 오기욱 강석재 박진석	월, 수 월(루게릭)▲목 화, 수, 목▲ 해 외 연 수 화▲금, 토(2주) 화, 목, 토(3주) 월▲금▲토(4주) 금 화, 토(2,3주)	월, 수 월(루게릭)▲목 목(파킨슨)▲ 화▲금 월, 목 월▲수 목 금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이상운동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김석현 오동훈 조성진 월	수, 토(4주) 화, 금, 토(2주) 월, 목, 토(1,3주) 목 목	월, 수, 목 화, 금 월, 목 화, 수 소아정신의학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인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고주연	월, 목 화, 금, 토(2,3주)	월, 목 수,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일렉르기성 피부 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김정은	월, 수, 토(4주)	화,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권오정 이경근 최동호 이강홍 정민성 하태경 안병규	수, 금 월 화, 금 수, 목 목 목, 토(2주) 월, 화 월, 토(3주)	수 목 월 화 월, 목(당도)▲수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이식, 혈관질환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복강경로봇수술, 비대수술복강경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위암, 상부위장관, 복강경로봇, 외과질환 및 탈장수술, 비만대사 일반 외과질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정원상 김 혁	화 화, 목	화, 금 화, 목 월, 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일반 흉부외과 질환
	김혜선	월, 수, 금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이광현 최충혁	토 월, 수, 금 월, 수	월, 목 수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강창남 이봉근	화, 목 월 화	화 월, 수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병,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황규태	목 화, 금	화, 목 금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목, 토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 - 560 - 2114 ■ 응급실 : 031 - 560 - 2050 ■ 전화예약 : 1577 - 9382 ■ 진료의뢰센터 : 031 - 560 - 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오석전	목	화	뇌종양, 척추질환 (요추디스크, 경추부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종양)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이형중	월, 수 금, 토(4주)	금, 수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추종양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출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2,3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추종양
	한명훈		금	일반 신경외과 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및성형, 선천성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김연환	월, 수 화, 목, 토(매주)	화, 금 화, 목	비만성형,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및 외상, 미용성형(코, 알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수, 금	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최중섭	월, 수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목, 토(1,3주)	월, 목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화, 목, 금, 토(4주)	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안과 2290-8570	엄기방 이병로 송인석 임한웅 이주향	월, 수 화, 목, 토(3주) 금, 토(1,3주) 금 토(2,4주)	금, 목 화, 수, 금 화, 목 월, 수	녹내장, 백내장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형, 눈물샘, 미숙아망막, 사시, 기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김경래	화, 금, 토(3주) 목, 토(2주)	화, 월, 목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화, 금, 토(1주)	화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토(4주)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성의숙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비뇨기과 2290-8593	이건중	목	목	일반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토(1주)	화, 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영 김용태 박성열 이호원	수, 금 화, 목, 토(2주) 해 외 월, 목, 토(3,4주)	월, 수, 금 연 수	신장이식및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비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전립선질환, 신결석, 배뇨장애, 방광염, 일반비뇨기과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곤	월, 수, 금, 토(4주) 화, 목, 토(1주) 월▲	월, 수 화, 목(1,3주),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루게릭클리닉(서관 7층 세포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박해진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운영 김지영	토(2,4주)	수 월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알골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매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창주 한지영 임재중 김태건 전재윤	해 외 월~금 월~금 월, 화, 수, 금 목	연 수 월, 화, 금 월, 화, 목 월, 화, 수, 금 화, 목,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랑니발치
	심광섭	월, 화, 금	수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수, 금, 토(2주) 월, 화, 목, 토(4주)	월, 목 금 화, 수, 목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이수진 수, 금	월, 화(2,4주), 목 화(1,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성윤경 최찬범	월, 화, 목, 토(3주) 월, 수, 목 화, 수, 금, 토(2주) 화, 목, 토(1,2주) 월, 화, 수, 금, 토(2주) 월, 수, 금	화, 수 월, 목 목, 금 월, 화, 목 수 수,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선암형소타형, 근염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경피증, 통풍 강직성척추염, 척추관절염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베체트병, 간선관절염
	조수경 이 승	월, 수, 목, 토(3주) 화, 목, 토(3주)	월, 목 월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손일웅	월, 토(2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송승택	수, 토(4주)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정혜진	금, 토(1주)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화, 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계재활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종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화, 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계재활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관절재활의학과 2290-9216	최종혁	월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이진규	목 화	목 화	전 주관절, 화전단기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관절 슬관절내내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고 용 박훈기 황환식 박석원 김정현		화, 수 화, 수 월, 목 목, 금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월~금, 토(2,4주) 월, 화, 목, 금	월~금, 토(2,4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김정태 김연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 2015년 7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유교상 박찬혁 정재윤 송준석 최원석 김원중	화 월, 목 월, 금 수, 금 화, 수, 토(2,4주) 목, 토(3주) 수, 목	월, 목 화 수 월 목 수, 금 화, 금 목 화 월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대장질환(만성궤양성 대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간질환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심장내과 560-2220	김순길 최성일 박한철 신정훈	월, 화, 금 목 화, 수, 토(1,3주) 토(2,4주)	목 월, 수, 금 화 월, 화,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부정맥질환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신장내과 560-2220	김호중 한상용 이주하 이은영	월, 화, 목 월, 수, 금 화, 목, 토(1,2,3주) 수	화, 목 수 월, 금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고혈압, 혈뇨, 신장염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내분비내과 560-2220	박용수 이창범 홍상모	월, 금, 토(3,4주) 수, 목, 토(1,2주) 월, 화, 토	화, 목 월, 수 월, 수,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일반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이혜순 이 승	월, 수, 토(3주) 화, 목, 금, 토(2,4주)	화, 목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섬유근통, 관절통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문지용	월, 수, 토(1,3주) 화, 목, 금, 토(2,4주)	화, 목 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만성기침, 호흡기관,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액종양내과 560-2220	최정혜 원영웅	화, 목, 토(2,4주) 월, 수, 금, 토(1,3주)	월, 수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오재원 문진화 이영호 김지혜 최영진 이영주	화, 수, 금, 토 화, 목, 토(4주)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월, 목, 토(3주) 화, 금	화 월, 목 월, 수 월 수,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신경 소아혈액종양 소아내분비, 성장 소아호흡기 뇌출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신경과 560-2260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오경필	 월, 수, 목 월, 수, 목 월, 화, 목, 토 화, 수	 월, 수 월, 수 목 금	뇌출중, 두통, 말초신경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뇌출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치매, 뇌출중, 두통 말초혈관질환, 손발저림, 어지럼증, 두통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월, 화, 목 화, 금, 토(3주) 월, 수, 금, 토(2주)	월, 목 화, 수, 금, 토(1주) 수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PTSD, 불안장애, EMDR 신경영양학,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외과 560-2320	김충현 김재민 정진환 류재일 김현우	월, 금, 토(2주) 수, 목, 토(3주) 월 화, 수, 토(2주) 토(1주)	수 월 화, 목 금 월, 수	뇌종양, 뇌출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척추질환, 척추종양, 두부외상
흉부외과 560-2300	이철범 노선균 남승혁	월, 목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금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박태수 박예수 김종현	월, 수, 금 화, 목 수, 금, 토(3주) 목, 토(2주)	수 월, 목 월 화,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교관절 및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박기철 이정일	화, 토(4주) 화, 토(1주)	목, 금 화,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이정환 고이란	수 월, 목, 금 화	월, 수 목 화, 금	내시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최승석 이장현 류재만 장정우	월, 금 화, 목, 토 수	수 화, 금 월, 금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악안면 및 미용성형 일반 성형외과질환 일반 성형외과질환
외과 560-2290	남영수 박현경 김한준 김민규 최민영 윤정아 김현일	월, 수 목 화, 금, 토(3주) 화 금, 토(4주) 목, 토(1주) 토(2주)	목 화 목 수, 금 월, 화 월, 수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체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대장항문병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안과 560-2350	성민철 강민호 임한웅 신용운	수, 금 월, 토(1,3주) 수, 토(1,3주) 월, 금, 토(2,4주)	월, 수 화, 금 화, 목,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굴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피부과 560-2280	유희준 김정수 이정우	월, 화, 금 수, 목, 토 화	화, 목 월, 수 수, 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 피부과질환, 피부미용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정진혁	월, 수 화, 토	목 화, 금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정재호 조용희	월, 수, 토(1주) 목, 금, 토(2주) 화, 금, 토(3주)	수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비부비동내시경,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 소아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문홍상	화, 목 수, 토(3주)	목 월,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김규식	월, 금, 토(1주) 토(2,4주)	화 화, 금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560-2380	장성호 조형필	월, 금 화	월, 수 화, 금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두통, 어깨통증 만성통증(목, 허리, 어깨, 무릎) 및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재활, 척추손상, 재활, 스포츠 의학
치과 560-2660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2,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560-2095	심재향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560-2730	김영환	화	화	종양핵의학

* 2015년 7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 예정

쾌적한 환경, 전문적인 진료로 건강과 행복을 지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신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설되는 새로운 건물에는 연구 시설과 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한 특성화센터, 전문클리닉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관 건축과 더불어 한양대학교구리 병원은 첨단 시설을 완비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031-560-2114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